

일 주 문



현성 스님 안양교도소 생수 보시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8월 7일 말복을 맞아 안양교도소에 생수 4000병을 보시했다.



NH농협은행, 종교평화기금 후원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이 8월 6일 종교평화기금으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2억원을 지정 기탁했다.



양상문 감독, 생명나눔 기부 양상문 LG트윈스 감독이 생명나눔 실천본부(이사장 일면)에 발전기금으로 300만원을 후원했다.

군중교구, 면장갑 33만 켤레 보시



조계종 군중교구(교구장 정우)는 8월 7일 7사단 사령부에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2차 사업으로 면장갑 33만 켤레를 전달했다. 5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준비된 면장갑은 최전방 철책선 부대 및 예비사단의 동계작전준비와 해안경계 부대 및 내륙 작전부대 진지공사 작업용으로, 서해5도 경계근무 부대, 울릉도·독도 경비 등 48개 부대에 전제된다.

정우 스님은 "일등을 준비 중인 장병들에게 작업용 면장갑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참해 준 대중들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정우 스님은 전달식에 이어 7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 훈련병들에게 자장면 800그릇과 수박 50통을 공양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국염불만일회 17차 염불정진대회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는 8월 2~3일 원주 치악산 자연학습원과 구룡사에서 200여 염불행자가 모인 가운데 제 17차 염불정진대회를 성료했다.

염불행자들은 48대원을 새기며 북소리에 맞춰 나무아미타불 염불 1만 송을 절야로 진행했으며 3일 구룡사까지 행선염불을 진행했다.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는 2025년 12월 21일 회향한다.

노덕현 기자

“경전 공부, 부처님 가르침 알아가는 수행”

경전수련회 여는 안동 보경사 주지 오경 스님

여름 방학과 휴가를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수련회와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이들 대부분이 참선, 절, 불교 문화 체험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전 강의를 주제로 매년 수련회를 개최하는 사찰이 있다. 바로 안동 보경사다. 보경사 주지로 주석하며 경전 수련회를 이끌고 있는 보경 스님은 경전 공부와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알아가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경전 공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안동 보경사는 오는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유식 20론’을 주제로 1박 2일 경전 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미 지난 7월 17~18일에도 같은 주제로 수련회를 원만 회향하기도 했다.

강의는 주지 오경스님(사진)이 직접 진행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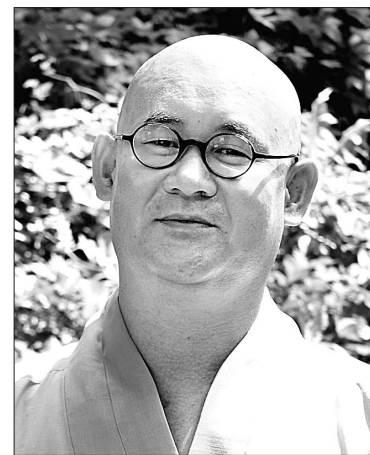
오는 16~17일 경전수련회 열고

‘유식 20론’ 매일 9시간 강의
주입식 교육 아닌 토론 위주 수업

조석예불과 새벽 참선 수행을 제외하고는 매일 3시간 3차례 경전 강의로 프로그램이 채워진다. 딱딱한 강의 일정이지만 참가자들은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경전을 깊이 있게 익힌다. 단순히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과 논쟁을 통해 경전의 진의를 배우는 것이어서 수련회 인원은 15명으로 제한된다.

스님은 이번 강의의 경전인 ‘유식 20론’에 대해 존재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체계라고 설명했다.

“유식은 자연과학자, 인문학자, 사회학자 등 그



누구라도 우리를 둘러싼 대상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통섭하는 사상이고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는 사상이므로 유식을 배워 이해하게 되면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나와 세상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면서 사고의 전환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

입니다. 직관적 사고와 서술에만 익숙해진 우리 불교의 현주소에 분석적, 논리적 유식불교를 보완하면 불교의 진정한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보경사의 경전 수련회는 정해학당 회원들의 요청에서 비롯됐다. 보경사 부설 정해학당은 부산과 안동에서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을 하고 있는 재가불자들의 공부 모임이다. 정해학당 회원들은 그동안 <금강경> <반야심경> <대승기신론 해동소> <원각경> <화엄경> <육조단경> <수심결> 등 경전과 선어록 등을 꾸준히 공부해왔다.

스님은 경전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바른 삶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현대인들은 학력이 높기는 하지만 지혜와 성찰이 부족합니다. 현대인들은 길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불교 경전 공부는 이같은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경전 공부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054)842-4080 신성민 기자 mtp79@hyunbul.com

행원문화상에 정목 스님(특별상)·성의신 단장(예술상)

9월 24일 역삼동 대려도서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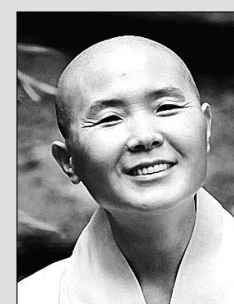
재단법인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이 주최하는 제23회 행원문화상에 정목 스님(특별상)과 성의신 마하연 단장(예술상)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원문화재단은 지난 7월 23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사회를 거쳐 이와 같이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목 스님은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국내 첫 비구니 MC로 활동하였고 각종 불교방송 활동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비구니 스님 1위에 선정되는 등 한국불교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는

명상과 마음공부전문 인터넷 방송 ‘유나방송’(una.or.kr)을 개국해 세계 34개국의 청취자들에게 종교를 초월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명상과 마음공부를 전파하고 있다.

방송 외에도 감동적인 공개강좌 등을 통해 위안과 자비가 필요한 사부대중들에게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며 많은 불자들에게 불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등 불교교리 전파에 일익을 담당한 점이 크게 인정되어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저서로는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등이 있다.

예술상 수상자 성의신 마하연 단장은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국악과 박사과정을



정목 스님



성의신 마하연 단장

수료한 국내 최고의 해금연주자다. 성 단장은 1993년 불교실내악단 ‘마하연’을 창단하고 대표를 맡아 20여년 동안 대중들에게 불음을 전하

는 불자예술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불교음악에 정진하고 있다. 특히 성 단장이 발간한 음반은 불교음악의 대중화와 해금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2010년에는 KBS국악대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예술가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범패음악을 현대화한 공연으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격찬을 받는 등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공을 크게 인정받아 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예술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행원문화상 시상식은 9월 24일 역삼동 대려도에서 개최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세월호 유가족과 한마음...광화문서 두차례 3천배 정진

박종린 불력회 회장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3천배의 절을 올렸다. 남들은 주말을 반기며 한껏 여유를 부려보는 시간에 신형단체 불력회(부처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박종린(사진) 회원 30여명은 8월 2일 토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3천배를 봉행했다. 8월 둘째주 역시 마찬가지였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단식농성중인 유가족과 조계종 노동위원 도철 스님을 지지하기 위해서였다. 불자라면 누구나 동체대비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의 일이라고 보

기에 절박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종린 법사(59, 동국대 역경위원)의 이야기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294명의 희생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정부를 향해 불력회 회원들의 마음은 유가족과 함께였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절에는 참회의 의미가 담겨있었다. 물질만능주의가 참사를 야기한 만큼 모두의 공업을 반성하지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불력회가 3천배를 봉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도를 하기도 했다. 박 법사는 “물질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색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절은 자신의 의지하에 몸을 조복받기 위한 몸짓”이라며 현대사회에 절이 던지는 의미가 작지 않음을 강조했다.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은 사회적 연대의 표현으로 절이 새롭게 거듭났다는 사실이다.

사법연수생 45기 템플스테이



새내기 법조인들이 봉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자로 거듭났다. 사법연수생 45기 중 다라법우회 회원 10여 명은 8월 1일 봉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봉은사 템플스테이에는 예불, 108배, 발우공양 등 불교예절을 비롯해, 명상과 숲길 걷기, 편지쓰기, 소금만다라 체험 등 지친 일상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차담에서 법조인들의 정법구현에 대한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대학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4년 8월 10일 부터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4년 9월 16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교 예술 대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 ◇원서교부 : 2014년 8월 10일 ~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14년 9월 5일 금요일

활안스님 제 8회 80 화엄경 강의와 제 3회 선문염송 특강

◇일 시 : 2014년 9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장 소 : 청량리 금강선원

※ 오늘날 현실에 맞는 화엄경 해석 강의

※ 80화엄경 사경본 보급합니다.
제 1권 ~ 81권 (각권 10,000원)